



중국 산둥성 농업청 방문기

중국 산둥성농업청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1994년 농업기술 및 인권 교류 협정을 맺고 매년 몇 차례씩 친선 방문을 하여 양국의 농업을 집중적으로 확인함과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마련에 계기가 되었으며 2003년 11월 2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농업청장인 戰樹稼(전수의) 농업청장이 우리 협회를 방문하여 한국 마사회를 비롯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관리공사를 방문함과 산둥성 농수산업 관련 투자 설명회를 갖는가 하면, 한일사료와 명성농기계 회사를 시찰케 하고 大田에서 개최한 농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를 관람하며 아쉬운 시간으로 11월 5일 한국을 떠났다.

우리 협회는 이에 답방으로 2004년 3월 21일 오후 협회 진흥관에서 중국 산둥성 시찰단 임원이 함께 합숙하여 내일에 중국 산둥성 시찰의 성공을 바라며 고단한 심에 들었다.

3월 22일 아침 시찰단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여 9시 15분 KE845 비행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 1시간 30분만에 중국 산둥성 청도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중국 산둥성 농업청에 대하여~!!

중국 산둥성은 한국 인천 서쪽에 위치한 비행기 90분 거리인 중국 東便(동편)에 위치한 농산물의 곡창지대로 人口 9500萬, 광활한 농



▲ 빈주시 유화그룹에서 관계자 등과 협의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경지,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농업인으로써 孔子(공자)와 孟子(맹자)의 탄생지인 곡부市와 그 유명한 泰山 등 천체의 관광지가 위치해 있는 유서 깊은 곡창 지대로 알려져 있다.

1970년 이래 산동성은 주곡을 자급하고 있으며 밀이 주요 식량곡물이다.

산동성은 최우선으로 인민정부의 건설 허가를 받아 1988년부터 현재 15年間 國家의 계획에 따라 농업종합개발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했다.

제 1단계로 1988~1993년까지 기간은 농산물이 부족하였기에 식량 생산에 중점을 두고 양곡과 면화기름 생산을 증산시켰고 제 2단계는 1994~1998년까지 농민은 양곡판매가 어렵고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수입은 늘지 않아 특용작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쪽으로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구상을 조성하여 목축업, 어업 및 농산물 가공업 등으로 전환하여 농촌 경제를 증진시키고 국가 농업 개발에 관한 두 가지를 전환하여 실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수확량이 보통이거나 낮은 밭 개량과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고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했고

둘째, 농산물 생산량 증가 위주로 농업생산구조를 조정하여 과학기술에 의하여 많은 수확, 우수한 품질,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는 새롭게 발전단계에 진입했으며 농업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됐다고 한다.



중국 산동성 농업청 방문 이모저모

3월 22일(첫째날)

壽光市(수광시)의 야채 및 과수 비닐하우스 견학에 李培

吉(이배길) 수광시장의 직접 안내로 담벽을 위주로의 특색의 단고추 비닐 하우스를 견학하였으며 저녁은 수광시장의 만찬으로 양국에 친목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3월 23일(둘째날)

濱州市(빈주시) 빈주유화그룹에 도착하여 겨울 대추 농장 5000t의 공기조절 창고와 22,000畝(무) 40萬坪(길이6km, 폭 2km) 등 보기 드문 광활한 토지의 겨울대추농장을 견학하였다. 고표준 겨울대추 밀식원을 건설하였고, 가공공장을 비롯한 강대간 기술 산업화에 체계 공사를 형성하였으며 법정 대표인 姜玉華(강옥화) 그룹회장 이사장이 민영화 회사의 지도자상을 부유인민 진흥중화에 현대 농업 개발을 주도산업으로 하고 겨울 대추를 주요상품으로 하며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민영화 그룹 회사로 유망성 있고, 발전에 계기가 되리라 시찰단은 인정하게 됐다.

3월 24일(세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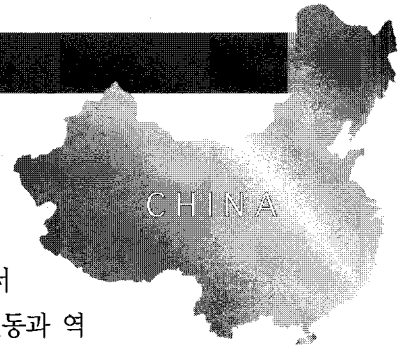
오전 9~12시 산동성 농업청 주최 중호호텔 4층 회의실 산동성 물류교류회 전반의 설명회에 참가하여 이론을 듣고 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농산물의 부패 문제로 인한 방부제 첨가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질문엔 겸손하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후엔 은좌성양(銀座聖洋) 물류센터에 도착하여 현대적인 시설을 참관하면서 컴퓨터 작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았다.

3월 25일(네째날)

산동성의 신비로운 명산 泰山(태산), 中國 산동성의 유명한 泰山, 1545m, 마치 山上天國, 孔子(공자), 皇帝(황제)가 泰山 제단에 焚香(분향)했다는 곳에 케이블카로 15分 거리로 아름다운 山上의 모습과 묘리한 양식의 건축과 이름난 석재사의 글씨를 보면서 한국의 詩(시) 중국 태산에 대한 시를 읊어가면서 정취를 만끽하기도 했다.



케이블카 속에서 15분간, 산세의 오묘한 계곡을 관찰하면서 충북 유흥중 부연합회장은 은은한 옛 가락에 한시를 읊조리면서 흥겨운 시간을 맴돌았다.

“泰山の詩 -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3월 26일(다섯째날)

산동성의曲阜(곡부)출신 성인 孔子(공자) 사당참배
 사당에는 공자의 사상이 담긴 글, 사당참배 수백
 년에 달한 아름드리 香木(향목), 숲 속 5~6m 높이에
 기라성 같은 비각에 비석, 이름난 작가의 글귀와 서
 예적인 도취감에 잠잠히 2500여年前 世界 四代(4대)
 성인 유교의 본산지를 참관하면서 中國 산동성의 曲
 부(곡부)에는 90%이상이 유교신자이겠지 하면서 한
 국어를 통역하는 가이드에게 질문하니 中國에는 형
 식적인 종교의 자유는 있어도 거의 무종교 상태이다
 라고 말해 예상치 못한 느낌이 들었으며 오후 3시
 5분 중국 제남공항 KE848 편 비행기로 이륙하는 산
 동성이 아쉽기만 했다.

서 시찰과 관광

에 많은 느낌이 서

려운채 시대의 변동과 역

사의 변화로 사회주의 국가 발전에

현실에만 노력해야 하는 느낌이 드는 듯 했다. 中國
 에 문화혁명에 즈음해 종교와 유교사상이 역사적인
 변화 속에 잠겨져 가는 그 사실이 아쉽기만 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별세하면 죽음 후엔 火葬(화장)
 하고 3번 제사 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제사문제, 조
 부가 세상을 하직 후 호적이 없어지고 족보를 무시하
 는 풍습으로 전환되어 가는 문화혁명이 아쉽기만 하
 다. 자손은 아들 낳으면 하나 낳기!! 딸 낳으면 아들
 을 희망하면서, 둘을 마지막 낳기 운동으로 변한 것
 이 생존을 위한 건설 설계인양 13억의 많은 人口를
 통치하는 그 어려움에 이해는 간다. 광활한 영토이지
 만 1인당 1500坪(평) 土地를 이용하는 사회주의의 모
 습!! 농업인구가 85%선이니 농업에 치밀한 발전이
 필요한 산동성을 뒤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해야했다.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는 우리 한국 농업의 갈 길은
 무엇이며 우리 회원과 농민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이고
 國民(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안할 수 없게
 됐다.

땀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우리 협회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회원과 농민
 은 우리 生命의 양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에서 다량
 생산만을 위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
 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생명력을 추구하는 친환경
 먹거리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외국에서
 물려오는 값싼 음식물을 경계하고 우리 몸에는 우리
 토지에서 만든 방부제 없이 믿음직한 우리 상품의 먹
 거리로 대처하는 그 모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 아니
 겠는가? ㉞

중국 산동성에 농업청 방문을 마치고

4박 5일의 짧은 기간에 中國 곡창지대인 산동성에



▲ 중국 산동성 농업청 전수의 정장과 필자